

전북대 '삼성문화관'·계명대 '아트홀'·충남대 '정심화홀' 부러웠는데...

광주·전남대 학가에도 '문화의 꽃' 핀다



호신대 예음홀

전북대 삼성문화관, 계명대 아트홀, 충남대 정심화홀..

서울은 물론이고 각 지역의 대학 안에 있는 공연장이 지역 문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비해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는 이렇다할 공연장이 없었다. 최근 광주·전남 대학가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3일 피아니스트 김영호(연세대 교수)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중인 호남신학대 예음홀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호남신학대는 최근 예음홀을 리노베이션, 전문 연주홀로 업그레이드시켰다. 빛이 들어오던 유리창을 없애 후 원목으로 공연장 전체를 마감했고, 천정도 높였다. 또 전문 건축 음향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공연장 내 소리 울림을 조절하는 등 음향도 개선했다.

좌석은 250석에서 200석으로 줄여 쾌적한 상태에서 공연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피아노 듀오 연주도 가능하도록 기존의 스타인웨이 피아노와 함께 아바하 그랜드 피아노를 한 대 더 구입했다.

호신대는 이번 예음홀 리노베이션과 함께 모두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엘리베이터 설치, 화장실 보수, 종합연습실 마련 등 예음홀이 있는 음악관 전체를 개보수하는 중이다.

학교측은 내년 1월부터 음악학과 학생들 뿐 아니라, 일반 연주자들도 예음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관 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음홀 바로 옆 건물에 자리잡은 카페 T 브라운과 현재 신축중인 기숙사동 8층에 들어설 스카이라운지 등을 연계하면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신대 예음홀 전문 연주홀로

조선대 1천석 규모 공연장 신축

전남대 음악관·연주홀도 새단장

지역 연주자들 위해 공연장 활용

조선대학교는 1천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을 신축한다. 중앙도서관 옆에 지상 2층, 2천평 규모로 들어서는 공연장은 건축비만 97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11년 완공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의 예산을 받아 당초 공연장과 태양열에너지 교육 홍보관을 만들 예정이었던 학교측은 시공업체의 사정으로 교육 홍보관 건축이 중단되면서 아예 첨단 시설을 갖춘 전문공연장만을 단독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재설계를 진행 중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광주시 관계자 등이 학교를 방문, 2천석과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 조선대학교 공연장을 '문화벨트'로 꾸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연장은 본무대와 3개의 보조무대를 구성, 3막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일단 건물외 완공되면 공연 관련 전문업체와 연계, 시설 투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공연장 운영 역시 전문 업체에게 맡겨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학교측은 현재 공연장 이름을 공모중이며 시공업체도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대 예술대학은 음악학과 종합연습실을 리노베이션한다. 약 100석 규모로 새단장, 학교 오케스트라 등의 연습실을 물론,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300석 규모의 예술대 연주홀은 학생 뿐 아니라 외부 연주자들의 공연 장소로 활용 중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은 500석 규모의 오페라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 뿐 아니라 공연장이 없는 광산구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꾸미고 있다.

오는 27일 오후 7시에는 광주 CBS소년소녀합창단과 여성합창단 초청 공연이 열린다. 그밖에 호남대 공연장에서는 현재 대학연극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억만년의 그리움, 별을 노래하다

광주일보 송기동 기자 천체사진전

27~내달 4일·황금동 갤러리 '음스'

'세계 천문의 해'를 맞아 현직 기자가 별을 주제로 한 이색 사진전을 마련한다.



광주일보 사회2부 송기동(45) 기자는 오는 27일~12월4일 광주시 동구 황금동 갤러리 음스에서 '별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천체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광주 망월동, 화순 가수리 숲대, 영광 백수 고인돌, 담양 금성산성, 장흥 정남진 천문대, 경남 하동 소나무를 배경으로 펼쳐진 별의 아름다움을 담은 20여 점을 선보인다.

화순 물영양지에서 찍은 '달빛연가'는 사각(寫角)이 180도를 넘는 초광각 렌즈인 어안렌즈를 이용해 별빛과 달빛, 빛깔이 어우러진 서정적인 볼 밤하늘을 표현했다. 고인돌과 느티나무, 사할, 탐, 숲대 등 한국적인 정서를 지닌 대상을 흐르는 별과 함께 프레임에 담았다.

또 영광에서 고인돌을 배경으로 카메라 앵글에 담은 '천년의 빛'은 별의 움직임을 긴 잔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수천년의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고인돌과 별의 조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이들 작품은 1시간 이상 카메라 셔터를 열어 고정촬영했으며, 셔터가 열려있는 동안 별들이 지구의 자전에 따라 움직이며 만들어낸 아름다운 곡선이 고스란



히 담겼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오는 28일 오후 2~4시에는 이 지역 아마추어 천문가 모임인 '광주천체 관측팀' 회원들이 보유한 굴절·반사망원경 등 다양한 천체망원경을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이벤트도 열린다.

그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광주일보에 입사해 사진기자로 활동하다가 2006년부터 사회2부 기자로 재직 중이다.

한편 국제 천문연맹은 1609년 11월 30일 이탈리아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42년)의 망원경을 이용한 역사적인 첫 관측을 기념해 올해를 '세계 천문의 해'로 정했다. 문의 062-228-244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베트남 정부 광주 '갤러리 D'에 감사장

광주 '갤러리 D'(관장 강경자)가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베트남 현대 미술을 소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4일 베트남 정부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광주를 찾은 판 락 빈 주한 베트남 대사(사진 왼쪽)는 갤러리 D를 방문해 강 관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판 락 빈 대사는 "베트남 미술을 관심을 갖고 한국에 소개해 줘 감사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갤러리 D는 부이상파이 등 베트남 작가 14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오마주 베트남과 한국의 미술세계'전(10월15일~11월8일)을 열어 이 지역에 베트남 현대 미술을 소개했다.

또 오는 12월에는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의 육종 시를 한국 작가들이 시어로 표현한 작품을 모은 '호치민 육종시 시연전 한국작가 25인 초대전'을 선보



일 예정이다.

한편 판 락 빈 대사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을 방문해 박광대 광주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베트남인들이 한국인과 광주시민의 배려와 관심 속에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소외 이웃에 문화향연

'빛고을봉사단' 330번째 공연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랑의 향연을 펼쳐 온 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단장 나덕주)이 오는 28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330번째 공연을 펼친다.

지역 어르신들 모시고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이준수씨가 관소리 단가를 부르고 정혜숙·허미라씨가 민요를, 하리벨리 팀이 벨리댄스를 선사한다. 또 김성원·채송아씨가 트로트를 부르며 감백현씨가 통기타 공연을 펼친다.

다음 공연은 내달 4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이어진다. 문의 062-434-506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이대욱 독주회

27일 클래식 음악감상실 한울림



피아니스트 이대욱씨(사진·한양대 교수)가 27일 오후 7시 독주회를 갖는다.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클래식 음악감상실 '한울림'이 모처럼 준비한 음악회다.

'대화'가 있는 음악회-피아니스트 이대욱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가을날 듣기 좋은 쇼팽의 곡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짰다.

연주 레퍼토리는 쇼팽의 '야상곡 B장조 작품 62-1', 마주르카 'B장조 작품 63', '바갈라데 작품 60'이며 베토벤의 화려한 '소나타 작품 106 허버클라비어'도 선보인다.

플리어드와 피바디 음대에서 수학한 후 미시간 주립대 교수를 역임한 이씨는 울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는 등 지휘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62-375-22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장로찬양단 정기연주회

30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음악으로 선교와 사랑을 전하는 광주장로찬양단(단장 박종남)이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17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명예단장 김현구 장로가 작사하고 윤학원(중앙대 교수)씨가 작곡한 '주여! 여기 함께 하소서'를 시작으로 '하늘의 아버지, 주 하나님의 은혜' '그의 빛 안에 살면' 등 13곡을 선보이며 남성합창, 부부합창, 남성4중창 등이 나서 다채로운 곡을 선사한다.

또 성악 전공자로 구성된 '성투스 앙상블'이 출연해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주님의 크신 은혜 놀라워라' 등을 연주하게 된다. 지휘는 정석산성, 반주는 나원진·이주영 씨가 맡았다.

광주 지역 66개 교회 장로 95명으로 구성된 장로찬양단은 지난 1992년 창단해 매년 정기연주회를 갖고 있다. 한편, 찬양단은 올해 단원 100명 확보를 목표로 헌신적인 봉사를 펼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11-624-979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화/안/내

영화에 빠지다

메가박스

1관	2012 (124)	최고급관
2관	백야행 (184)	
3관	청담보살 (154)	
4관	청담보살 (154)	
5관	2012 (124)	
6관	솔로이스트 (124)	
7관	백야행 (184)	
8관	2012 (124)	
9관	2012 (124)	

• 어프루 주자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권결제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런던역사거리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2관	킬미 (184)/펜트하우스코끼리 (184)
3관	2012 (124)
4관	2012 (124)
5관	바스터즈: 거침내석들 (184)/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6관	청담보살 (154)
7관	2012 (124)
8관	집행자 (184)
9관	청담보살 (154)
10관	2012 (124)

원두사랑 영화사랑 • 메: www.joycb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메남점 (무억화관옆)



1588-7941 상무점연결 병행 -(1번 or 2번) -> 0번

하미시네마

1관	바스터즈: 거침내석들 (184)
2관	청담보살 (154)
3관	집행자 (184)
4관	킬미 (184)
5관	청담보살 (154)
6관	펜트하우스코끼리 (184)/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7관	2012 (124)
8관	2012 (124)
9관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10관	2012 (124)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65 매일 심야 • 아동용신사 & OK 캐쉬백카드 할인 혜택 • 하이 수영장 289-5757 • 하이 볼링장 262-0925 • 하이 골프장 251-5060 • 하이 담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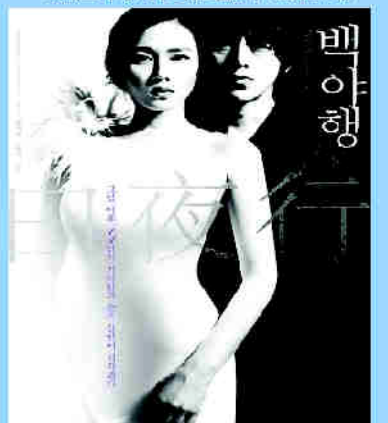


고려시할 고객상담 •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대무문 하미스포텍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2012 (124)
2관	2012 (124)
3관	통길동의후예 (124)
4관	청담보살 (154)
5관	솔로이스트 (124)
6관	트와일라잇 (124)
7관	백야행 (184)
8관	닌자어센 (184)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용신사 할인혜택 • 세티스누차 사수나(오전5시~오후11시)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2012 (124)
2관	2012 (124)
3관	2012 (124)
4관	청담보살 (154)
5관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6관	집행자 (184)
7관	펜트하우스코끼리 (18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 단, 입장권 구매 고래에 한함)



세무서 기점 • www.primuschema.com / www.jelichinema.co.kr • 총장동 3기 ☎ARS 전화예매 ☎227-1960